

이룸소식 2015 11호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시작된 10월이 마무리 되고 겨울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찾아온 추위와 함께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시황

지난 7월 이후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안정화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0월에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종목들의 주가가 양호했던 점은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6월 이후 순매도로 전환된 외국인들은 10월에 매수세로 전환되었고 11월 현재에서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중 종목별로는 코스닥 및 개별 종목들이 조정을 지속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대형 제조업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지수는 약 3.4% 상승하였으나 코스닥지수는 0.8% 상승에 그쳤습니다.

운용경과

이룸은 8월 이후 중소형 개별 종목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대형우량주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낙폭이 컸던 대형유통주 및 삼성전자, 현대차 관련주 등 최근 환율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중 조정이 수익률 방어에 기여하였으나 그 동안 비중이 높았던 개별종목들의 주가조정과 비중이 높았던 현대글로비스의 주가 급락 등으로 인해 월간 수익률은 지수대비 상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고객 중심의 중소형 가치 스타일은 약 1%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용성과는 아쉽지만 연초 이후 이룸의 중소형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이 매우 컸던 점과 9월 중순 이후 지수반등이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의 반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양호한 성과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 시장전망

8월 한 때 조성되었던 공포감은 10월 말 종합지수가 2,030포인트까지 회복되면서 많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반등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연내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의 흐름도 부진한 상황이어서 주식시장이 강한 상승을 지속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7월이후 코스닥과 종합주가지수와의 차이가 커진 점과 양호한 3분기 실적, 그리고 과도했던 가격 부담이 완화된 점을 감안해 보면 코스닥 중심의 반등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운용계획

이룸의 포트폴리오 조정작업은 대체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비중을 유지하면서 각각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종목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종목들이 11월 이후 이룸의 수익률에 기여하여 연말까지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1.

조세훈 올림 / 이룸투자자문 대표